

體質判別表를 이용한 體質判別の 客觀化 方案

金鍾悅·金敬堯·宋正模*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한 사람의 체질을 여러 四象醫¹⁾가 판별했을 때 그 결과가 같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사상의학의 발전에 중요하고도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체질판별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원인은 체질판별법이 서로 달라서이거나, 어느 한 쪽이 체질판별에 미숙해서이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사상의학의 수준의 문제이며 전자의 경우는 누구의 체질판별법이 옳으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고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체질판별의 객관화가 요구된다.

2. 研究의 現況

체질판별의 객관화를 위한 사상의학계의 노력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기계적 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체형 측정, 두면부 측정과 생화학적 분석 등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체질판별에 유의성 있는 객관적 지표들을 제공해주는 한 다. 그러나 체구와 頭肩腰臀의 크기 측정에 의한 방법은 예외가 많고²⁻³⁾, 두면부의 세부 크기 측정법은 측정방법과 공식화에 문제가 있으며⁴⁻⁷⁾, 생화학적 방법은 비록 이제마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론의 전개과정에 확신할 수 없는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다.⁸⁻¹⁰⁾ 즉 객관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객관화된 내용이 이제마의 체질판별법과 과연 일치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1) 사상의학을 전공하여 사상의학에 일정한 소양을 갖춘 사람을 뜻함.
- 2)李文鎬, 洪淳用: 四象體質類型과 體格 및 身體形態指數와의 比較研究, 四象醫學會誌 2:1, 71-86면.
- 3)許萬會, 宋正模, 金達來, 高炳熙: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4:1, 107-148면.
- 4)허반옥 김동수: 朝鮮族 成人 300名에 對한 四象醫學의 體質測定, 四象醫學會誌 6:1, 55-66면.
- 5)고병희 외 7인: 四象體質別 頭面部의 형태학적 특징, 四象醫學會誌 8:1, 101-186면.
- 6)김창수: 태음인과 소음인의 두면부의 체질인류학특점, 四象醫學會誌 9:2, 299-302면.
- 7)김수범, 송일병: 腰痛患者의 四象體質醫學의 臨床分析 報告(四象處方, 赤外線體熱診斷, 藥針療法을 중심으로), 四象醫學會誌 8:1, 377-394면.
- 8)金敬堯, 韓宗鉉, 洪淳用: 太陰人 男學生의 血液變化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3:1, 151-172면.
- 9)이수경,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身體計測 및 檢査所見을 中心으로 한 四象人의 特征에 대한 分析, 四象醫學會誌 8:1, 349-376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체질판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법(QSCC)이 있다. 이는 사회과학의 설문조사법을 도입한 것으로 통계처리방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어 한층 발전된 방법임에 틀림없다.¹¹⁻¹⁹⁾ 그러나 QSCC는 四診法中 問診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QSCC만으로 자동 체질판별을 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문의 내용을 설문항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문의 뜻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거나 Desirable Response²⁰⁾를 유발하는 문항이 있으므로 아직 임상에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즉 지금까지의 객관화 방안은 종합적 체질판별법(四診法) 전체를 객관화한 것이 아니고 四診法의 일부를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실제로 이제마가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체질판별법의 내용 전체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研究의 目的

한의학적 진단법인 四診法은 주관적 관찰과 상대적 문답에 의한 것이다. 체질판별은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통찰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진단의 과정에 주관과 개인적 통찰이 개입된다는데 체질판별의 객관화가 어려운 원인이 있다. 설부론 객관화는 주관과 통찰이 배제되어 오히려 체질판별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과 통찰을 살리면서 진단의 내용이 객관에게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객관이란 '나'나 '너'가 아닌 객, 즉 제3자가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화란 주관적 인식 내용을 객관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객관화에 흔히 실험, 통계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식 내용이 같은 조건에서의 실험이나 통계를 통해 제3자에게 재현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관의 인식 내용을 제3자에게도 똑같이 인식되도록 한다는 것이 객관화의 의미이다.

- 10) 조황성, 지상은, 이의주, 홍석철, 고병회, 권건혁, 남봉현, 조동욱 :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9 : 1, 147-162면.
- 11) 金鐘元, 高炳熙 : 入院患者 53例의 體質辨證을 위한 設問 統計分析(少陽人/少陰人), 四象醫學會誌 3 : 1, 89-104면.
- 12) 趙鏞台, 宋一炳 : 入院患者 53例의 體質辨證을 위한 設問 統計分析(태음인/태양인), 四象醫學會誌 3 : 1, 105-120면.
- 13)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 분류검사(QSCC)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5 : 1, 61-80면.
- 14)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5 : 1, 81-98면.
- 15) 趙鏞台, 高炳熙, 宋一炳 :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6 : 1, 21-40면.
- 16) 金達來 : 設問紙를 利用한 體質鑑別方法의 信賴度에 關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6 : 1, 89-94면.
- 17) 김선호, 고병회, 송일병 :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표준화 연구, 四象醫學會誌 8 : 1, 187-246면.
- 18) 이정찬, 고병회, 송일병 :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타당화 연구, 四象醫學會誌 8 : 1, 247-294면.
- 19) 노성호, 이의주, 홍석철, 고병회,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四象醫學會誌 8 : 2, 239-256면.
- 20) '바람직한 쪽으로 대답하는 것'을 뜻하며, 調査方法論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즉 도덕적 가치가 관련되는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보다도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에 따라 응답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아직도 아내를 때립니까?' 하고 묻는다면 누구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신은 아직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QSCC에서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든지, '남에게 보답하기는 인색한 편이다.'와 같은 문항들은 실제 성향을 반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설문 문항들이다.

그런데 현대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상대주의²¹⁾적 입장에서는 완전한 객관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間主觀', 또는 '普遍化'란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²²⁾ 즉 객관이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누구도 인식의 주체가 객이 될 수 없으므로 완전히 객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완전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관과 주관 사이에 서로(間)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확장하여서 객을(제3자를) 설득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완전히 격리된 관찰자는 없다고 하여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하는 현대물리학과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는 각자의 주관과 통찰을 어떻게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느냐, 즉 間主觀의 영역을 얼마나 확장시켜 나가느냐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四診法의 진단내용을 모두 변수화하고 변수값을 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여 체질판별의 근거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의 체질판별 기준이 보편에게 인식되고 그 실효성이 검증될 수 있으며,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각각의 변수가 체질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체질판별의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고는 동의수세보원의 체질판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체질판별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하

고, 四象醫家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각각의 변수값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변수값들을 기재하는 체질판별표를 제안함으로써 체질판별의 객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체질판별에 관한 기존문헌자료를 수집한다.
2. 이를 四診法에 따라 5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마다 몇 가지 변수를 설정한다.
3. 각 변수값의 결정법을 정한다.
4. 변수값을 기재하는 체질판별표를 제안한다.
5. 問診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 Desirable Response를 피하기 위해 도덕성 여부와 관련되는 질문을 피하고, 가급적 긍정적인 질문으로 만들었다.

둘째,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 질문을 짧게 하고, 일 처리 방식이나 감정표현방식 등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였다.

6. 자주 나오는 출전을 略語로 표기하였다. 『黃帝內經』²³⁾은 '내경'으로, 『東醫壽世保元』은 '보원'으로, 『東醫四象診療醫典』²⁴⁾은 '의전'으로, 『東醫四象要訣』²⁵⁾은 '요결'로 축약하였다. 또

21) 상대주의(상대주의, Relativismus) : 제 사물 사이의 연관 내지 관계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인식 대상 그 자체(대상)의 즉자태 Ansich)는 인식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입장. 따라서 상대주의는 인식하는 주관과 무관한 진리, 즉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2) 요즘 철학계에서는 '객관화'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객관'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 실체가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인식 주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물이란 없다. 예를 들어 의자라는 사물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의자로 인식한다는 것, 즉 주관과 주관이 그 사물을 의자라고 공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과 주관이 공감하는 부분을 '間主觀'이라 하여 '객관' 대신에 間主觀이라 하고, '객관화'란 표현 대신 '보편화'란 용어를 쓴다고 한다.

23) 洪元植編 :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4.

자주 인용하는 辨證十組는 '십조'로 '權英植 望診法'은 '권씨'로, '金洲 四象人 相形秘訣'은 '김주'로, 『한국의 체질이론』²⁴⁾의 종합적 체질감별법은 '종합'으로 축약하였다.

Ⅲ. 體質判別에 관한 자료 수집

1. 東醫壽世保元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판별에 관련된 조문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2. 四端論

-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 2-18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3. 擴充論

- 3-1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

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 3-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 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 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 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而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 3-7 太陽之性氣 恒欲進 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 而不欲措,

24) 李泰浩: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杏林出版, 1990.

25)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 소나무, 1992. 3-6쪽

- 太陰之性氣 恒欲靜 而不欲動，少陰之性氣 恒欲處 而不欲出。
- 3-9 太陽之情氣 恒欲爲雄 而不欲爲雌，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 3-11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佞然 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
少陽人 雖至愚 其性 恢恢然 猶式度也 雖至不肖 人之知愚 亦知之也，
太陰人 雖至愚 其性 卓卓然 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
少陰人 雖至愚 其性 坦坦然 猶撫循也 雖至不肖 人之能否 亦知之也。
- 3-12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 而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 而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 3-13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擇交之喜心，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 而輕於交遇故 每爲生疎交遇人所誣 而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 3-14 少陽人 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 而不謹於居處故 每爲內做居處人所陷 而偏哀傷臟 以其重外 而輕內故也。
- 3-14 太陰人 重於居處故 恒有內做居處之樂心，此心 出於秉彜之敬心
莫非至善 而不謹於事務故 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 而偏樂傷臟 以其重內 而輕外故也。
- 3-15 太陰之 宜戒驕心 太陰之頤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臍 宜戒矜心 少陰之臍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 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3-16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18. 四象人 辨證論

- 18-2 太陽人 體形氣像 腦頤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頤之起勢 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 18-3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 而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 而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 而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 而材幹 能於黨與。
- 18-4 太陽人 體形 元不難辨 而人數 稀罕故 最爲難辨也 其體形 腦頤之起勢 強旺
性質 疏通 又有果斷，其病 噎膈反胃 解休證 亦自易辨 而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壯健人也。
- 18-5 少陰人老人 亦有噎證 不可誤作 太陽人治。
- 18-6 太陽女 體形 壯實 而肝小脇窄 子宮不足 故不能生產，

以六蕃玩理 而太陽牡牛馬 體形壯實 而亦不能生產者 其理可推.

18-7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而人數亦多 四象人中 最爲易辨.

18-8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少陰人治.

18-9 太陰少陰人 體形 或略相彷彿 難辨疑似 而觀其病證則 必無不辨.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 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 則完實也,

太陰人 有胸膈怔忡證也,

少陰人 有手足挽亂證也,

太陰人 有目眇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

少陰人 則無此證也,

少陰人 平時呼吸 平均 而間有一太息呼吸也,

太陰人 則無此太息呼吸也,

太陰人 栖疾惡寒中 能飲冷水,

少陰人 栖疾惡寒中 不飲冷水,

太陰人 脈長而緊, 少陰人 脈緩而弱,

太陰人 肌肉 堅實, 少陰人 肌肉 浮軟,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18-10 少陰人 體形 矮短 而亦多有長大者 或有八九尺長大者,

太陰人 體形 長大 而亦或有六尺矮短者.

18-11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 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 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18-12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 居之安 資之深 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 而物

化之也.

若 懼心 至於恐心則 大病作 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18-13 少陰人 恒有 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 脾氣即活也.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即和也.

18-14 少陰人 有咽喉證 其病太重而爲緩病也 不可等閒任置, 當用 蔞桂八物湯 或用 獐肝 金蛇酒.

18-15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 非殆證也 不必疑惑 而亦不可無藥 當用 藤五加皮湯.

18-16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普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18-17 太陽人 噎膈則 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 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 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 臍下 必如冰冷.

2. 東醫四象診療醫典

－ 體質判別表를 이용한 體質判別의 客觀化 方案 －

항목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成局	水氣成局	木氣成局	火氣成局	金氣成局
性	牛之性	驪之性	馬之性	龍之性
용모	似下流而厚重, 黠淫	月形, 혹 馬形	①목이 패고(項秀) 머리에 남북이 났다(전후로 내민 것) ②眉目이 明朗하다 ③입살이 얇고 하관이 빠르나(脣 淺薄, 下關尖) 혹은 둥글고 적다(圓小) ④빛이 희다(粹白)	뚜렷하다(方圓)
기육	대개는 肥胖하나 건실	浮軟	淺薄	瘦瘠
체능	蹶蹶然黑色, 念然下意, 臨臨然長大, 惘然未僂(엄연하고 꾀뻑하다)	서면 되둑되둑하고(立則躁險), 보행시에는 앞으로 수그린다(行而似伏). 淸然竊然, 固而陰賊	위가 성하고 아래가 허하여 걸으면 흔들기를 잘한다	
체격			어깨가 평평하다	
성음			가늘어도 명랑하다(細亮)	
심정	① 가정을 중하게 여기고 외계를 輕忽히 아는 마음이 있다 ② 교만심이 많다 ③ 사치심이 많다 ④ 탐욕심이 많다	① 偷逸心이 많다 ② 慮患心이 不周하다 ③ 남을 中傷하고 해치기를 좋아한다 ④ 掠奪心이 많다 ⑤ 질투심이 많아서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번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偏私心이 과하다 ② 外交를 좋아하고 虛華를 잘 차린다 ③ 外界를 중히 여기고 가정을 輕忽히 여긴다 ④ 적은 재주를 믿고 내가 난 체 하기를 잘한다	① 擇交心이 不廣 ② 人身攻擊心이 많다 ③ 竊取心이 있다 ④ 誇張心과 自尊心이 많다 ⑤ 舉措가 踴躍하여 사업에 실패가 있어도 후회심이 없다 ⑥ 放縱心이 과하다
성정	① 안일한 것을 좋아하고 동작하기를 싫어한다 ② 꼭 참고 툭툭 내뱉지를 아니하여 회로를 형색에 불현한다(和而不發) ③ 일을 제 때에 못하고 늦게 서두른다(不務時動而後之) ④ 매일 머리 빗기를 좋아한다	① 향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나가기 싫어한다 ② 사치하기를 좋아한다 ③ 친숙인과 교류하기를 좋아한다	① 매사에 한없이 자세하며 할려고 하고 내버려두기를 싫어한다(欲舉而不欲措) ② 剽銳好勇하여 强武性이 강하다	과단성과 疏通性이 많다
특징	사업성취에 장기가 있고 거처범절에 儀範이 있으며 內明하기 짝이 없다	평시에 호흡이 평균하나 이따금 긴 한숨을 쉰다.	충명하여 사무에 능하다	交際가 민활
참고	영웅열사가 태음인중에 많으나, 심지가 險凶하고 식견이 混濁하며 愒怠愚痴한 자도 있다	심성이 편협하고 驕吝하며 사려가 세밀하고 疑慮가 많은 자도 있다. 소음인 여자는 다산한다.	행동이 浮躁輕薄하여 언어와 노기를 참지 못하고, 自恃와 고집이 세어서 可憎한 자도 있다	
영추 통천편	貪而不仁, 下齊湛湛, 好內而惡出, 心和而不發, 不務於時, 動而後之	小貪而賊心, 見人有亡, 常若有得, 好傷好害, 見人有榮, 乃反慍怒, 心疾而無恩	謔譎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宜, 好爲外交, 而不內附.	居處于干, 好言大事, 無能而虛說, 志發于四野, 舉措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 而常無悔

3. 辨證十條²⁷⁾

항 목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기상	무겁고 점잖은 기상	단정하고 천연한 기상 (요결) 침착하고 단중	날래고 툭툭한 기상 (요결) 強猛함
체형	서면 허리와 배가 왕성해 보이고 목덜미가 빈약해 보임.	膀胱이 벌어지고 두 갈비가 좁다.	胸部가 왕성하여 두 갈비가 벌어진 편이며 방광이 홀쭉해 보인다.
피부	두텁고 뻣세다. 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다. (요결) 거칠다	뜨고 연하다. (요결) 연하고 부드럽다	미끄럽고 얇어 보인다. 그러나 혹 두터운 사람도 있다.
맥도	길고 緊함	느리고 약함	뜨고 자진 편, 혹 미약
특징	코끝이 두터움 (요결) 準頭가 豐厚 모공이 큰편	손가락이 짧고 굵음 (요결) 앞머리가 고수머리털이 있는 자는 소음인이 많다. 모공이 작다	앞니가 성글고 빠드러진 사람, 눈 썹이 짙은 사람은 少陽人이 많다. (요결) 모공은 보통이나 큰 사람도 있다.
행보	발이 무겁고 허리를 흔들	조심성 있게 걷는 편	몸을 심히 흔들고, 발이 가벼움
성음	말수가 적으며 어운이 웅장한 사람 이 많고 대개 침중한 기운이 있다.	은유한 편	어운이 맑고 枯燥한 편이며 말기운 이 좋은 사람이 많다.
성질	정직하고 固執하여 변동이 적으며 꾸준한 끈기가 있고, 평화를 좋아 하여 얼굴에 항상 喜性을 띄운다. (요결) 미련하고 우둔함	침착하고 온순하며 늘 樂性을 띄우 나 혹 躁燥한 사람 (요결) 급하긴 하여도 내성적이어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 안함	剛急하고 폴속한 기운이 있고 항상 怒性을 띄운다. (요결) 급하여서 발끈발끈하여 참을 성이 없다. 싹싹하고 인정 많음.
기능	거처에 능하며 대개 오락을 좋아하는 다. 일을 싫어하며 事務에 敏達하지 못하나 연구가 깊고 뒤를 염려하는 생각이 주밀하며 성취성이 강하여 사업가가 많다.	친구교제와 承上接下에 능하며 일 에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많다. (요결) 매사를 세밀하게 잘 처리하 나 꼼꼼하여서 일에 진전이 없다. 박력이 없다.	활동력이 강하여 일을 좋아하며 두 뇌가 명석하여 사무에 특재가 있는 사람이 많다. (요결) 판단력이 빠르며 자기일보 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평소의 증세	대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림. 대개 추위를 못견딤 (요결) 열다자는 찬물을 좋아하고 한다자는 더운물을 좋아한다.	대개 추위를 못견딤 (요결) 비위가 약하여서 소화기 장 애가 많다. 더운물을 좋아한다. 열 다자는 냉수도 잘 먹는다.	사시를 막론하고 식사시에 땀을 흘 리거나 잘 때 흘리는 사람은 소양 인이 많다. 대개 더위를 못 견딤. 위장병 있는 사람이 대개 변비증이 있다. (요결) 신경성병이 많다. 냉수를 좋 아한다.

27) 李道耕：四象要覽，益山，圓佛敎出版社，167-168면，1995.

朴寅商：東醫四象要訣，서울，소나무，44-47면，1992.

4. 金洲 四象人 相形秘訣²⁸⁾

區分點	太 陰 人	少 陰 人	少 陽 人
顔形	下顎이 厚하지 않은편	體軀에 比하여 조금 긴 편, 或은 등근 경우도 있다.	馬狀으로 鷄卵形이며 下顎이 厚하여 安定感이 있다. 少陰人 보다는 體軀에 비해 덜 긴 편.
顔色	紅潮를 띄며 濁하고 검게 보인다. 特히 뺨 부위가 붉은 境遇도 있다.	蒼白한 편, 또는 先天的으로 얼굴 전체가 슬췌한 사람같이 붉은 境遇도 있다.	누렇고 검은편, 혹은 하얀 境遇도 있다. 혹은 뺨 부위가 붉은 境遇도 있다.
象形	이마가 突出된 곳이 없이 平平하고 兩眉間은 동전 한개를 놓아둔것 같다.	大體的으로 中間 部位가 약간 陷沒되어 있다.	大體的으로 兩眉間이 突出되어 있거나 中間 部位가 돌출되어 있다.
形解説	이마가 처음부터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감	1. 全體가 넘적하고 불룩하면서 살짝 넘어감. 2. 좀 들어갔다가 뒤로 넘어감. 3. 兩眉間 1/3위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감	1. 이마가 들어간듯 하면서 튀어나옴 2. 그 냥 튀어나옴 3. 兩眉間 1/3에서 들어간 듯 하면서 위가 튀어나옴
眼形	重而平한 牛眼形이다. 혹은 부리부리하게 무섭게 보이기도 한다. (虎狀)	大而整한 鳥眼形(鷄眼)으로 둥글고 눈초리가 조금 있으면서 濁함(울고 난 직후처럼 눈물이 고여 있는 듯한 모습)	輕한 鳥眼形으로 合理的이고 둥글면서 맑다. 혹은 눈이 작으면서 눈초리가 있는 境遇도 있다.
鼻形	통통하고 큰 편. 或 매부리코, 혹은 납작하면서 넓은 경우도 있다. 코의 상부가 두툼고 넓은 편.	1. 코 끝에 앵두를 달아 놓은 것 같다. (방울코 : 코의 상부가 좁고 코의 하부는 넓어지며 끝에 앵두가 달린 듯함) 2. 납작코인데 코끝이 살짝 올라간 듯(安東多)	코끝이 대체로 銳利하고 작은편이나, 혹은 크면서 銳利한 境遇도 있다. 혹은 들창코
脣形	上下脣의 模樣이 거의 비슷한 편.	1. 上脣은 薄하고, 下脣은 厚하면서 나옴 2. 下脣이 안 나오면서 鷄肛門같이 둥글 3. 입이 크면서 上下로 뒤집혀짐 4. 턱이 쪽 빠지며서 下齒가 上齒를 덮음 5. 염소 입(입이 크다) 6. 犬口形	1. 下顎이 厚하면서 安定感있고, 上脣이 약간 위로 치켜져 올라감 2. 上下脣이 매우 얇음 3. 上下脣이 서로 벌어지면서 두툼고 특히 上脣이 위로 치켜져 올라감
下顎形	가름하게 보인다. 얼굴이 퍼지면서 주걱턱인 境遇도 있다.	얼굴이 길면서 주걱턱인 境遇도 있다.	厚하여 安定感이 있다. 주걱턱이 많은 편이다.
手形	長大而平面狀(거칠다) 少陽人에 비해 肉이 있는 편이다.	1. 短大而曲線狀(비단결) 卽 安定感이 있다. 2. 말랐어도 살이 있는 듯이 보인다. 3. 짧거나 긴 境遇도 있다.	骨格이 굵고 潤氣가 없으며 살이 없어 뼈만 있는 것 같다. 손가락 끝이 뾰족하게 나온 女子도 있다. 體軀에 비해 크거나 긴 경우도 많다.
足形	발목이 굵은편		발목이 가는편

28) 金洲 : 性理臨床學, 大星文化社, 서울, 40-44면, 1997.

5. 權英植 望診法²⁹⁾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체형	頭足俱小, 腰脇厚大	肩部狹小, 膀胱大	胸強足經	頭大足小
眼鼻口	鼻強露而滑者, 眼球黑如漆點者는 태음인이 많다		眼光炯明者, 眼球突出者, 眼鼻口에 剽銳한 氣運이 있는 자는 소양인이 많다	
턱	地閣(턱)豐厚者가 많다	口大頤薄者가 많다	脣薄頤尖者가 많다	
態度	不動而靜者는 태음인이 많다	如依如重(기대기 잘하는 것)은 少陰人에 많다	如搖如輕(까부는 것)者는 少陽人이 많다	
聲音	鄭聲(言語鄭重) 不欲言者(말이 없는 것)는 太陰人이 많다 聲音이 濁大	多言(重言復言)자는 소음인이 많다 聲音이 半淸半濁	輕言(말이 가벼운 것)者는 소양인에 많다 聲音이 細豪	
氣象	氣血如餘者(씩씩한 모습)은 태음인이 많다	氣如不足者(용기가 없는 것)는 소음인이 많다	氣如有餘者(용기가 있는 것)는 소양인 많다	威猛如餘者(위압적 모습)
容貌	容貌厚重者는 태음인이 많다	容貌多情者(암전한 모습)는 소음인이 많다	容貌剽銳者(날카로운 모습)는 소양인이 많다	

6. 『韓國의 體質理論』의 綜合的 體質鑑別法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氣象	(牛)正大	(나귀)小巧	(馬)銳氣	(龍)斷氣
外形	기육堅實修整	기육浮軟簡易	脣頰淺薄有剽	方圓有果
行動	언행이 들팍하고 무거우며 체력이 좋은 편이고 행동적일 수 있으나, 때로는 느리고 능글맞다	불임성은 좋으나, 남과 시비가 적고, 풍하여 집안에 들어앉기를 즐긴다	잠시도 거동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비판적이며 호전적이다	의욕과잉으로 주위와 화동이 안되며, 재질이 뛰어나다
品性과 體形	피부는 厚하나 質은 약하고, 기육의 발육 또한 좋으며 용모는 원형, 타원형	암전하며 體勢가 앞으로 굽고 살집은 적은 편이나 골격은 굵은 편이다. 단 피부가 연하고 매끄럽다	상체, 특히 앞가슴의 발육이 좋고 하지와 뼈가 가늘다. 보행시 자세가 곧고 바르나 안정감이 없다.	端雅하고 용모와 체구가 단정, 얼굴이 가름하면서 圓形
性格	웅장한 계획과 치밀한 이해득실을 앞세우고 욕심이 많고 음흉하다	내성적이고 섬세하며 조직적이고 총명한 편이다. 무기력하여 활동력이 부진하다. 우유부단한 경향이 있다	비판적이고 명민하고 경솔한 편이며 타산적이나 체념도 빠르다	독창적이고 착상이 뛰어나나 번의가 잦고 비협조적이다
動作	의젓하고 들팍하다	보행시 앞을 수그리고 암전하게 걷는다	등을 뒤로 젖히고 보행시 몸을 흔든다	항상 머리를 번쩍 들고 있다
病的인 감정 상태	공포심	小心, 不安定	對人恐怖心	조급한 생각

2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역음 :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33-134면, 1997.

Ⅳ. 判別法의 변수화 작업

1. 얼굴(望診)

얼굴 망진법에 관하여는 김주법에 가장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으며, 대체로 진료의전이나 변증십

조의 묘사와 그 방향이 일치하므로 김주법을 주로 참고하였다. 얼굴 망진을 면밀히 하는 학문에 관상학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상학의 용어를 이용하여 얼굴 형태를 묘사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변수 옆의 ‘ ’ 속의 문자는 변수 값이다.

1) 기상 ‘소’, ‘나귀’, ‘말’, ‘용’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보원	18-9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 而修整正大	18-9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 而簡易小巧.		
의전	厚重			
십조	무겁고 점잖은 기상	단정하고 천연한 기상	날래고 푹푹한 기상	
요결		침착하고 단중.	强猛함	
권씨	氣血如餘(씩씩한 모습) 容貌厚重	氣如不足者(용기가 없는 것) 容貌多情者(암전한 모습)	氣如有餘者(용기가 있는 것) 容貌剽銳者(날카로운 모습)	威猛如餘者(위압적 모습)
종합	(牛)正大, 修整	(나귀)小巧, 簡易	(馬)銳氣	(龍)斷氣

고찰 : 태음인은 의젓함(有儀而修整正大)과 중후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무겁고 점잖다는 [십조]의 표현이 가장 적당해 보이며, 이는 소의 기상과 유사하다. 소음인 容貌詞氣에 體任自然하다는 것은 태도에 기대기를 잘한다는 것과 보다 관계가 깊은 표현으로 보이고, 簡易小巧하다는 것은 거동이 암전하나 교태가 있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정하고 교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나귀의 기상과 유사하다. 소양인에 있어서는 날래다와 날카롭다는 표현이 그 인상은 비슷하나 소음인의 감각이 섬세하여 날카로운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날래다는 표현이 보다 적합해 보이므로 ‘날래고 푹푹하다’는 [십조]의 표현이 적당해 보이며 이는 말의 기상과 유사하다. 태양인은 ‘欲進而不欲退’하므로 위압적인 느낌을 줄 것이며, 이는 용의 기상과 유사하다. 변수값을 간략히 정하기 위하여 각각 ‘소’, ‘나귀’, ‘말’, ‘용’으로 하였다.

2) 얼굴형 ‘넓적’, ‘길쭉’, ‘타원’, ‘계란’, ‘원형’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내경	下齊湛湛			
의전	似下流	月形, 혹 馬形	둥글고 적다(圓小)	뚜렷하다(方圓)
김주		體軀에 比하여 조금 긴 편, 或은 둥근 경우도 있다.	馬狀으로 鷄卵形이며 下顎이 厚하여 安定感이 있다. 少陰人 보다는 體軀에 비해 덜 긴 편.	
종합				方圓有果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두부측 진법	원형, 사각형	원삼각형, 간혹 안면납작	동글동글, 길쭉	圓長

고찰 : 태음인은 아래가 넓으므로(似下流) 넓적 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소양인도 각이 진 네모형이 많다(금형). 계란형은 자료에 따라 소음인, 혹은 소양인이라고 하나 태음인도 한 형과 모난데 없이 동글동글한 타원형이 많이 있고, 소양인은 계란형 보다는 동글동글하다는 표현이 더 많다. 얼굴의 길이는 소음인이 가장 길고, 소양인이 다음으로 긴 편이며, 태음인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넓적', '길쭉', '타원', '계란', '원형' 등으로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때 '타원'은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은(혹은 굽은) 타원형이고, '계란'은 가름하고 선이 고운 타원형이며, '원형'은 동글동글하고 선이 또렷한 원형이고, '금형'은 날카롭게 각진 사각형 또는 오각형이다.

3) 얼굴색 '청백', '적혹', '황백', '흑청', '적백', '적혹'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靑白面		빛이 희다(粹白)	

고찰 : 얼굴색에 관한 자료는 의전에 태음인은 검고 소양인은 희다고만 되어 있을 뿐 별로 없다. 그러나 동의수세보원에 태음인의 한열증을 면색으로 나눈바 있으므로 체질별로 표리증에 따라 태음인은 청백과 적혹으로, 소음인은 속이 차므로 청백색이 바탕이 될 것으로 보아 황백과 흑청으로(청백색이 바탕색), 소양인은 속이 뜨거우므로 적색이 바탕이 될 것으로 보아 적백, 적혹 등으로(적색이 바탕색) 나누어서 기재하여 관찰해 보기로 한다.

4) 머리 '납작', '침골첨', '전후장', '두피후', '두피박',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요결		(요결)앞머리가 고수머리 털이 있는자	(의전)목이 패고(項秀)머 리에 납북이 났다(전후로 내민 것)	
두부측 진법	원형/사각형, 頭皮厚軟, 枕骨평평	원삼각형, 頭皮薄強, 枕骨 細長	원돌출형, 전두/후두 돌 출, 頭皮乾強, 枕骨微圓	圓大形, 頭皮乾強, 枕骨 微圓

고찰 : 머리형태는 소양인은 전후로 돌출, 태음인은 납작, 소음인은 납작한 중에 枕骨이 튀어 나와 삼각형으로 보이며, 두피는 태음인이 두텁고 연하고, 나머지는 딱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머리 형태와 만지는 감촉을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5) 이마 ‘평평’, ‘함몰’, ‘돌출’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김주	이마가 突出된 곳이 없이 平平하고 兩眉間은 동전 한개를 놓아둔것 같다. 이마가 처음부터 주저앉으면서 뒤로 넘어감	大體의으로 中間 部位가 약간 陷沒되어 있다. 1. 全體가 넓적하고 볼록 하면서 살짝 넘어감. 2. 좀 들어갔다 뒤로 넘어감. 3. 兩眉間 1/3위에서 조금 들어갔다 다시 올라감	大體의으로 兩眉間이 突出되어 있거나 中間 部位가 돌출되어 있다. 1. 이마가 들어간듯 하면서 튀어나옴 2. 그냥 튀어나옴 3. 兩眉間 1/3에서 들어간듯 하면서 위가 튀어나옴	

고찰 : 김주법에서 태음인은 평평하고, 소음인은 대체로 가운데가 함몰되어 있으며, 소양인은 돌출되어 있다고 보므로 변수값을 ‘평평’, ‘함몰’, ‘돌출’로 정하였다.

6) 눈 ‘소눈’, ‘심안’, ‘호안’, ‘닭눈’, ‘사슴눈’, ‘매눈’, ‘구슬눈’, ‘눈썹강’, ‘눈썹약’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眉目이 明朗하다	
심조			눈썹이 길다	
권씨	眼球黑如漆點		眼光炯明, 眼球突出	
김주	重而平한 牛眼形이다. 혹은 부리부리하게 무섭게 보이기도 한다. (虎狀)	大而整한 鳥眼形(鷄眼)으로 둥글고 눈초리가 조금 있으면서 濁함(울고난 직후처럼 눈물이 고여 있는 듯한 모습)	輕한 鳥眼形으로 合理的이고 둥글면서 맑다. 혹은 눈이 작으면서 눈초리가 있는 境遇도 있다.	

고찰 : 관상법에서는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근 눈을 牛眼이라 한다.³⁰⁾ 그러나 태음인의 牛眼은 重而平이라 하였으므로 단순히 큰 눈이라기보다는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 부위가 평평한 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눈동자가 크고 둥글면서 눈꺼풀이 두툼고 겹이 많아 보이는 ‘소눈’과, 가늘면서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동자가 깊어 들어간 듯한 ‘심안’으로 나누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무섭게 생긴 ‘호안’을 따로 분류하였다.

소음인 눈은 大而整하다 했으나 역시 작은 눈도 있으므로 눈이 크면서 선이 고운 ‘사슴눈’과 눈이 작으면서 선이 굵고 눈물이 맺힌 듯 탁한 ‘닭눈’으로 나누었다. 소양인은 둥글면서 맑거나 작고 눈초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작고 날카롭고 힘이 있는 ‘매눈’³¹⁾과 눈동자가 크면서 눈빛이 맑고 뽕망뽕망한 ‘구슬눈’으로 나누었다. 그 외에 눈썹의 강약을 기재하여 참고한다.

30) 曹誠佑 :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96. 85쪽

31) 鳥眼이라 하는 것보다는 매의 눈이라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듯하여 용어를 바꾸었다.

7) 코 '풍성', '매부리', '방울', '납작', '작음', '예리', '들창', '산근높', '산근낮'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십조	코끝이 두터움			
권씨	鼻腔露而滑		眼鼻口에 票銳한 氣運	
요결	準頭가 豐厚			
김주	통통하고 큰 편. 或 매부리코, 혹은 납작하면서 넓은 경우도 있다. 코의 상부가 두텁고 넓은 편	1. 코 끝에 앵두를 달아 놓은 것 같다. (방울코: 코의 상부가 좁고 코의 하부는 넓어지며 끝에 앵두가 달린 듯함) 2. 납작코인데 코끝이 살짝 올라간듯 (安東多)	코끝이 대체로 銳利하고 작은편이나, 或은 크면서 銳利한 境遇도 있다. 혹은 들창코	

고찰: 태음인의 코가 두터운 것을 '풍성', 매부리코는 '매부리', 소음인의 방울코는 '방울', 납작한 코는 '납작', 소양인의 작은 코는 '작음', 코끝이 예리한 것은 '예리', 들창코는 '들창'이라 정하였다. 그 외에 양눈 사이 山根부위의 높고 낮음을 기재하여 체질별 유의성을 살피기로 하였다.

8) 입 '대', '소', '함몰', '돌출'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입살이 얇고 하관이 빠르다(脣頰淺薄, 下關尖)	
십조			앞니가 성글고 빠드러진 사람	
종합			脣頰淺薄有票	
김주	上下脣의 模樣이 거의 비슷한 편.	1. 上脣은 薄하고, 下脣은 厚하면서 나옴 2. 下脣이 안 나오면서 鷄肛門같이 둥금 3. 입이 크면서 上下로 뒤집혀짐 4. 턱이 쪽 빠지며서 下齒가 上齒를 덮음 5. 염소 입(입이 크다) 6. 犬口形	1. 上脣이 약간 위로 치켜져 올라감 2. 上下脣이 매우 얇음 3. 上下脣이 서로 벌어지면서 두텁고 특히 上脣이 위로 치켜져 올라감	

고찰: 소음인이 큰 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유의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양인은 脣頰淺薄이라 하였으므로 입이 작을 것이다. 따라서 염소입이나 개입처럼 소음인의 큰 입을 '대', 소양인의 작은 입을 '소'라 기재하고, 입이 나오고 들어간 것도 기재하여 소양인의 입이 앞으로 나온 경우가 많은가를 확인해본다.

9) 입술 ‘후’, ‘박’, ‘상’, ‘하’

아래 위 모두 두터운 입술을 ‘후’, 소양인의 아래 위 모두 얇은 입술을 ‘박’, 소양인의 윗입술이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을 ‘상’, 소음인의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하여 특히 두터운 입을 ‘하’ 라 기재한다.

10) 이 ‘옹니’, ‘성근니’, ‘뼈덩’, ‘덧니’

십조에 소양인은 앞니가 성글고 뼈드러진 자가 많다고 하였는데 그 외에도 옹니, 덧니 등에 관한 경향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옹니, 성근니, 뼈덩니, 덧니 등 이빨의 모양을 기재하여 체질별 유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옹니는 태음인, 뼈덩니와 덧니는 소양인, 성근니는 소음인과 소양인에게서 모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11) 턱 ‘풍후’, ‘가름’, ‘천박’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종합			脣頰淺薄有剝	
권씨	地閣(턱)豐厚	口大頰薄	脣薄頰尖	
김주	下顎이 厚하지 않은편. 가 름하게 보인다. 얼굴이 퍼 지면서 주걱턱인 境遇도 있다.	얼굴이 길면서 주걱턱인 境遇도 있다.	下顎이 厚하여 安定感이 있 다. 주걱턱이 많은 편이다.	

고찰 : 김주법에 소양인의 下顎이 후하다는 것은 어금니 부분이 각이 지며 튀어나온 것을 이룬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태음인의 턱이 넓고 두텁다고 하므로 ‘풍후’로, 소양인의 좁고 얇은 턱을 ‘천박’으로, 가름하게 생긴 소음인의 턱을 ‘가름’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2. 체형과 언행(望診+聞診)

1) 체구 ‘비’, ‘수’, ‘장’, ‘단’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보원	18-10 太陰人 體形 長大 而亦或有六尺矮短者.	18-10 少陰人 體形 矮短 而亦多有長大者 或有八九 尺長大者		

기본적으로 肥瘦長短을 표시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보통 이상으로 크고 작고 살찌고 마른 경우에만 기재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2) 체형 '요위', '둔부', '흉금', '뇌추'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보원	2-1 肝大而肺小	2-1 腎大而脾小	2-1 脾大而腎小	2-1 肺大而肝小
십조/ 의전	(십조) 서면 허리와 배가 왕성해 보이고 목덜미가 빈약해 보인다.		(의전) 어깨가 평평하다	
권씨	頭足俱小, 腰脇厚大	肩部狹小, 膀胱大者	胸強足經	頭大足小

고찰 : 수세보원에 따라 頭肩腰腎 중 상대적으로 큰 것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이 때 크기는 단순 크기가 아니므로 섰을 때 허리의 통거운 정도, 앉았을 때 엉덩이의 평퍼짐한 정도, 가슴의 품는 크기, 목의 일어선 기세 중 상대적으로 큰 것을 기재하기로 한다.

3) 손가락 '장후', '단후', '굵다', '새발'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십조		손가락이 짧고 굵음		
김주	長大而平面狀(거칠다) 少 陽人에 비해 肉이 있는 편 이다	1. 短大而曲線狀(비단결) 即 安定感이 있다. 2. 말랐어도 살이 있는 듯 이 보인다. 3. 짧거나 긴 境遇도 있다.	骨格이 굵고 潤氣가 없으 며 살이 없어 뼈만 있는 것같다. 손가락 끝이 뾰족 하게 나온 女子도 있다. 體軀에 비해 크거나 긴 경 우도 많다.	

고찰 : 태음인의 손가락은 굵으면서 길다고 했으나 굵으면서 짧은 손가락도 많다는 임상보고가 있으므로 손가락에 살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소음인의 손가락은 선이 고운 것이 특징이며, 소양인의 손가락은 살이 없고 뼈만 있는 듯한 새발모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길이보다는 손가락에 살이 있는가 없는가와 선이 투박한가 고운가 하는 점이 체질판별에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후', '단후'와 '굵다', '새발'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기로 한다.

4) 걸음 '허리', '숙임', '상체', '경', '중', '암전'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십조	발이 무겁고 허리를 흔들	조심성 있게 걷는 편	몸을 심히 흔들고, 발이 가벼움	
의전	蹻蹻然黑色, 念然下意, 臨 臨然長大, 惛然未僕(엄연 하고 꼳꼳하다)	서면 되뚝되뚝하고(立則躁 險), 보행시에는 앞으로 수 그린다(行而似伏). 淸然竊 然, 固而陰賊	위가 성하고 아래가 허하여 걸으면 흔들기를 잘한다	

고찰 : 태음인이 허리를 흔들는 것을 '허리', 발이 무겁고 걸음이 느린 것을 '중', 소음인이 앞으로 수그리고 걷는 것을 '숙임', 조심성있게 걷는 것을 '암전', 소양인이 상체를 흔들는 것을 '상체', 발이 가볍고 걸음이 빠른 것을 '경'으로 기재한다.

5) 態度 ‘무거움’, ‘기댐’, ‘부산’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권씨	不動而靜	如依如重 (기대기 잘하는 것)	如搖如輕(까부는 것)	

고찰 : 태음인의 거동이 무거운 것을 ‘무거움’, 소음인이 기대고 앉는 것을 ‘기댐’, 소양인이 부산한 것을 ‘부산’이라 기재한다.

6) 성음 ‘웅장’, ‘온유’, ‘맑음’, ‘탁함’, ‘경’, ‘중’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십조	말수가 적으며 어운이 웅장한 사람이 많고 대개 침중한 기운이 있다.	온유한 편	어운이 맑고 枯燥한 편이며 말기운이 좋은 사람이 많다.	
의전			가늘어도 명량하다(細亮)	
권씨	鄭聲(言語鄭重) 不欲言者(말이 없는 것) 聲音이濁大	多言(重言復言) 輕言(말이 가벼운 것)	輕言(말이 가벼운 것)	

고찰 : 태음인의 말소리가 웅장한 것을 ‘웅장’, 소음인의 말투가 온유한 것을 ‘온유’, 음인들의 말소리가 탁한 것을 ‘탁함’, 소양인의 말소리가 맑은 것을 ‘맑음’, 말이 가벼워서 의사표현이 빠른 것을 ‘경’, 말이 무거워서 의사표현이 느린 것을 ‘중’이라 기재한다.

7) 말솜씨 ‘다언’, ‘소언’, ‘느림’, ‘빠름’

말수가 많고 적은 것과 말이 빠르고 느린 것을 기재한다. 음인들은 말수가 적고 느리며, 양인들은 말수가 많고 빠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성 질(問診)

성격 문진은 동의수세보원의 원문에 바탕하여 여덟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원문의 본의를 파악하고, 전해 내려오는 표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문 문항을 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표현이 너무 어렵거나, 표현은 쉬워도 응답이 어렵거나, Desirable Response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들은 그 본의를 살리면서 표현을 바꾸었다. 변수값을 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설문을 먼저 네 개씩 정하여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의 순으로 ①, ②, ③, ④번 문항에 배치하였으며, 그 외에 변수값 결정에 도움이 되는 보조 문항들을 뒤의 괄호 안에 (⑤, ⑥...)으로 넣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감정 '희성', '락성', '노성', '애성'

2-18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3-1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而 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而 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而 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而 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而 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내경	心和而不發	常若有得	怒氣를 참지 못한다.	
십조	얼굴에 항상 喜性을 띄운다.	늘 樂性을 띄운다.	항상 怒性을 띄운다. 급하여서 발끈발끈하여 참을성이 없다. 풀속하다.	

고찰 : 喜樂相資하므로 태음인의 喜性과 소음인의 樂性은 구분이 어려울 것이다. 喜는 무슨 일로 기뻐하는 것이고, 樂은 오래오래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당해서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태음인의 喜성이요, 그러므로 마음이 화평하여 감정표현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心和而不發) 한편 내경의 표현과 같이 속으로 만족한 듯한 모습이 소음인의 樂性일 것이다. 소양인은 화를 잘 내므로 怒性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잘 내는 것은 현대인의 공통적 특성이라 그 자체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화내는 양상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태음인은 화를 잘 안 내나 고집을 오래 부리므로 화가 나면 오래갈 것이고, 소음인은 소심해서 쫓하고 오래갈 것이다. 태양인의 哀性은 달리 참고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문을 음미해 보면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라 하였으니³²⁾ 자신의 이해에 기인한 감정이 아니라 세태를 보고 느끼는 깊은 슬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문항들로 감정표현 방식을 살펴 분별할 수 있다.

32) 3-1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而 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문항 : ①늘 기쁜 편이다. ②늘 만족스런 편이다. ③화를 잘 내나 금방 풀어진다. ④세상일에 슬픔을 깊이 느낀다. ⑤감정표현을 안 하는 편이다. ⑥화를 잘 안 내나 한 번 내면 무섭게 낸다, ⑦화가 나면 꿈하고 오래 간다)

다시 고찰 : 여기서의 性은 감정이라기보다는 耳目鼻口로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조문(3-1)의 뜻을 음미해보면 태음인은 코로 인간관계를 맡을 때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을 느끼고 기뻐하는 것이므로 체제의 개혁보다는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시하여서 보수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음인은 입으로 세상의 특성을 맛볼 때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므로 현실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양인은 눈으로 세상모임을 볼 때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怒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일에 의분이 많을 것이며, 태양인은 귀로 세상의 흐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파악하고 슬퍼하는 것이므로 슬퍼한다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항을 만들어 성향을 파악해볼 수 있다.

문항 : 남들이 나를 보고 (①보수적이라고 한다. ②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③부당한 일에 의분이 많다고 한다. ④개혁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2) 廣博 ‘인륜’, ‘지방’, ‘사회’, ‘천시’

3-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 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 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 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 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18-4 太陽人 又有果斷,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내경			好爲外交 而不內附.	
의전	거처범절에 儀範이 있으며 內明하기 짝이 없다. 식견이 混濁하며 愚痴한 자도 있다.	사려가 세밀하다.	外交를 좋아한다.	과단성이 있다.
십조	평화를 좋아한다. 미련하고 우둔함	매사를 세밀하게 잘 처리하나 꼼꼼하여서 일에 진전이 없다. 일에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많다.	활동력이 강하다. 싹싹하고 인정 많다.	

고찰 : 태음인이 儀範이 있고, 평화를 좋아하는 것은 인륜에 廣博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儀範이 있다는 것은 거동이 의젓하다는 것이고, 평화를 좋아하므로 주위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다. 廣博於地方은 지방의 특색을 잘 안다는 것이므로 일의 세부를 잘 파악하여서 설계에 능하고 생각이 세밀하고 꼼꼼할 것이다. 사회란 널리 어울리는 것이므로 소양인이 외교를 좋아하고, 싹싹하며 활동력이 강할 것이다. 천시란 시대의

흐름이므로 태양인은 대세파악이 빠르고, 그러므로 과단성이 있을 것이다.

문항 : ①주위와 화목하게 지낸다. ②꼼꼼하다. ③활동적이다. ④대세 파악이 빠르다. (⑤예의와 격식을 중시한다. ⑥거동이 의젓하다. ⑦일을 세밀하게 한다. ⑧외교를 잘 한다. ⑨싹싹하다. ⑩과단성이 있다.)

3) 勇統 '거처', '당여', '사무', '교우'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18-3 太陽人...材幹 能於交遇... 少陽人...材幹 能於事務...

太陰人...材幹 能於居處... 少陰人...材幹 能於黨與.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가정을 중하게 여긴다	친숙인과 교류하기를 좋아한다		交際가 민활하다.
십조	거처에 능하다	친구교제와 承上接下에 능하다	일을 좋아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사무에 특재가 있는 사람이 많다. (요결) 판단력이 빠르며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고찰 : 거처에 능한 것은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므로 표현을 바꾸었다. 소음인이 당여에 능한 것은 친구교제와 승상접하에 능하다는 십조의 표현이 충실하나 표현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사람을 모시고 보살피는 데는 능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소양인의 경우는 십조에 표현이 풍부하므로 그대로 쓰되, 총명하냐고 묻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 처리 방식이나 배우는 속도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①집안을 잘 다스린다. ②가까운 사람을 자상히 보살핀다. ③일 처리가 빠르다. ④사람을 빨리 사귈다. (⑤빨리 배우는 편이다. ⑥판단이 빠르다.)

4) 편벽 '경외', '여환', '경내', '택교'

3-3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3-12 太陽人... 輕於黨與故 每爲親熱黨與人所陷 而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3-13 少陰人... 輕於交遇故 每爲生疎交遇人所誣 而偏喜傷臟 以其慮患之心 不周故也.

3-14 少陽人... 不謹於居處故 每爲內做居處人所陷 而偏哀傷臟 以其重外 而輕內故也.

3-14 太陰人... 不謹於事務故 每爲出外興事務人所誣 而偏樂傷臟 以其重內 而輕外故也.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가정을 중하게 여기고, 외계를 輕忽히 아는 마음이 있다.	慮患心이 不周하다.	外界를 중히 여기고 가정을 輕忽히 여긴다.	
십조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싹싹하고 인정 많다.	

고찰 : 태음인과 소양인의 반대되는 특징에 대해 QSCC의 문항 내용이 옳으나 Desirable Response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현을 달리 하였다. 소음인이 교제에 가깝다는 것은 '먼 사람에게 소홀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태양인의 반대되는 특성은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다'는 표현으로 하였다.

문항 ①바깥일에 소홀하다. ②집안 일에 소홀하다. ③먼 사람에게 소홀하다. ④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하다. ⑤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5) 性氣 '욕정', '욕처', '욕거', '욕진'

3-7 太陽之性氣 恒欲進 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 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 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 而不欲出.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내경	不務於時 動而後之			舉措不顧是非, 爲事如常自用, 事雖敗, 而常無悔.
의전	일을 제 때에 못하고 늦게 서두른다. 安逸한 것을 좋아하고 동작하기를 싫어한다. 惰怠한 자도 있다	항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나가기 싫어한다.	행동이 浮疎輕薄하여 언어와 노기를 참지 못한다. 할려고 하고 내버려 두기를 싫어한다.	舉措가 齟齬하여 사업에 실패가 있어도 후회심이 없다. 誇張心과 自尊心이 많다
십조	걸을 때 발이 무겁다		剛急하고 폴속한 기운이 있다.	

고찰 : 태음인이 靜하고자 하는 특성은 '움직이기 싫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내경의 '시작이 느리다'와 의전의 '惰怠하다'는 특징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소양인이 欲舉而不欲措하는 특성은 감정과 일 처리에 있어서 급하게 시작하되 뒤가 무른 것으로 나타난다. 보조문항 중 ⑥과 ⑦은 태음인과 소양인의 특성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문항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의 구별에 유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①움직이기 싫어한다. ②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③급하다. ④전진만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 ⑤계으르다. ⑥시작이 느리다. ⑦일을 빨리 시작하나 뒤가 무르다. ⑧아기 때 부산했다. ⑨아기 때 금방 울고 금방 그쳤다. ⑩실패해도 후회가 없다.)

6) 情氣 '내수', '욕자', '외승', '욕웅'

3-9 太陽之情氣 恒欲爲雄 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내경	好內而惡出		譏諱好自貴 有小小官 則高自宜	居處于于, 好言大事, 無能而虛說, 志發于四野
의전	꼭 참고 툭툭 내뱉지를 아 니하여 회로를 형색에 불 현한다	박력이 없다. 偷逸心이 많 다. 질투심이 많아서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변 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自恃와 고집이 세다. 虛華 를 잘 차린다. 적은 재주 를 믿고 내가 난 체 하기 를 잘한다	진취적이다.
십조	固執하여 변동이 적다. 꾸 준한 끈기가 있다.	내성적이어서 자기 의견을 잘 표현 안함		

고찰 : 태음인의 안으로 지키는 힘은 장점이므로 Desirable Response를 유발한다. 따라서 의전의 문항과 같이 감정 표현 방식이나 생각 표현 방식, 아기 때 습관 등으로 문항을 만들었다. 소양인의 고집은 태음인처럼 속으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강하게 주장하다가 곧 풀어지는 것이므로 고집보다는 주장이 강한 것으로 보아야 더 합당할 것이다. 태음인과 소양인의 고집부리는 양상도 두 체질의 구별에 유효성이 높을 것이다.

문항 ①꾸준한 끈기가 있다. ②내성적이다. ③주장이 강하다. ④큰소리를 잘 친다. (⑤한번 사귀 사람은 오래 간다. ⑥고집을 부리면 오래 간다. ⑦아기 때 한번 울면 오래 울었다. ⑧일하는데 박력이 없다. ⑨고집을 부리다가 금방 풀어진다. ⑩진취적이다.)

7) 장점 '성취', '단증', '강무', '소통'

18-3 太陽人 性質 長於疏通...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의전	사업성취에 장기가 있다. 영웅열사가 태음인중에 많다		剽銳好勇하여 强武性이 강하다.	疏通性이 많다.
십조	연구가 깊고, 뒤를 염려하 는 생각이 주밀하며... 성 취성이 강하여 사업가가 많다.	침착하고 온순하다. 말이 온유한 편이다.	기상이 날래고 푹푹하다. 활동력이 강하다.	

고찰 : 태음인의 성취성은 일을 벌인 후 오래오래 하여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이므로, 소양인이 일처리가 빠른 것과 구별해내기 위하여, '일 시작 전에 깊이 생각하는가', '시작하면 오래가는가'를 판별하는 문항을 넣었다. 태음인의 성취성은 內守와 관계가 깊다. 소양인의 剛武는 '날래다, 용감하다'의 뜻이므로 '언행이 빠르다, 나선다, 직선적이다'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①시작한 일은 오래 한다. ②일 처리가 단정하다. ③직선적이다. ④소통을 잘 시킨다. ⑤시작하기 전에 뒤를 깊이 생각한다. ⑥마무리를 잘 짓는 편이다. ⑦침착하다. ⑧나서는 편이다. ⑨동작이 빠르다. ⑩말을 빨리 한다.)

8) 병적 마음 '겁심', '불안', '구심', '급박'

18-11 太陰人 恒有怯心…

18-12 少陽人 恒有懼心…

18-13 少陰人 恒有 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의전 소음인이 疑慮가 많은 자도 있다.

심전 소음인이 躁燥한 자도 있다.

고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전이나 심조에 관련 서술이 별로 없으므로 문항을 새로 개발하였다. 겁의 뜻은 '겁내다, 피하다, 비겁하다'로, 구의 뜻은 '두려워하다, 위태롭게 여기다'로 되어 있다. 비겁한 것은 위험을 알고 피하는 것이고, 공구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즉 위험을 예감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겁은 안으로 겁내는 것이고, 구는 밖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즉 태음인의 겁은 內守하고자 할 때 일어날 위험을 미리 알고 겁내는 것이고, 소양인의 구는 擧하고자 할 때 일어날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태음인은 대체로 겁이 나면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요, 소양인은 두려워하면서도 일을 벌일 것이다. 소음인의 不安定之心은 QSCC의 문항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태음인과 보다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대범하다'와 '느긋하다'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문항 : ①겁이 나서 일을 안 할 때가 많다. ②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③두려워하면서도 일을 벌인다. ④마음이 급박하다. ⑤대범하다. ⑥느긋한 편이다.)

4. 증 세(問診)

위의 조문들로 볼 때 한열변증의 요소들과 음식반응, 대소변과 땀의 상태 및 특징적인 素症들이 체질판별에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1) 한열 '한냉소온' …..

18-9 …太陰人 瘧疾惡寒中 能飲冷水, 少陰人 瘧疾惡寒中 不飲冷水…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십조	대개 추위를 못견딤 (요결) 열다자는 찬물을 좋아하고 한다자는 더운물을 좋아한다.	대개 추위를 못견딤 (요결) 더운물을 좋아한다. 열다자 는 냉수도 잘 먹는다.	대개 더위를 못 견딤. (요결) 냉수를 좋아한다.

한열변증에는 ①(외한, 오열) ②(수족냉, 수족온) ③(다음, 소음) ④(냉식, 온식)의 4가지 변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변수를 한 글자씩 써서 네 글자가 하나의 변수값이 되게 한다. 예를 들어 오열-수족온-다음-냉식이면 '열온다냉'으로 표시하고 裡熱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음식 '다식', '소식', '불사'

다식, 소식은 소음인의 판별에 유의성이 있고, 不思飲食은 건강상태의 판단에 중요하므로 넣었다. 예를 들어 다식하면서 땀이 많다면 소음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不思飲食하면서 땀이 많다면 소음인 망양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탈난 음식 '조', '돼', '소', '닭'...

4) 기호 '과', '채', '육', '어', '패'

음인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개 건강하고, 양인들은 과일, 채소, 어패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개 건강하므로 체질판별에 유의성이 있다고 보아 넣었다.

5) 대변 '비', '설'

소음인 裡寒證에 설사가 많고, 소양인 裡熱證에 대개 변비가 있으며, 태음인은 변비가 있어도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수가 많으므로 체질판별에 유의성이 있다. 앞으로는 그 정도를 살펴 등급까지 표기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6) 소변 '단', '삭', '삽', '탁', '불리'

소변이 短數한 사람은 확실히 소양인이 많으므로 소양인의 판별에 유의성이 있다.

7) 땀 '다', '소', '자', '도'

18-9 ...太陰人 虛汗 則完實也, 少陰人 虛汗 則大病也...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십조	대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림.		사시를 막론하고 식사시에 땀을 흘리거나 잘 때 흘리는 사람은 소양인이 많다.

십조의 서술과 같이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땀의 다소를 보면 체질판별에 도움이 된다.

8) 건강증 ‘땀’, ‘소화’, ‘대변’, ‘소변’

18-16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몸 상태가 나빠질 때 어떤 변화부터 생기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역으로 건강증을 판별하도록 하였다. 즉 몸상태가 안 좋으면 먼저 ‘땀이 안난다’, ‘소화부터 안 된다’, ‘대변부터 막힌다’, ‘소변부터 막힌다’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나, 시험 사용할 때 응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문진표에서는 뺐다.

9) 병증 특징 ‘이질’, ‘설사’, ‘변비’, ‘얼격’

18-17 太陽人 噎膈則 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 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 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 臍下 必如冰冷.

위의 병증들은 그 체질에만 있다가 보다는 그 체질에 그 병증들이 있을 때 보이는 특징적 증상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하여서, ‘설사를 하면 배꼽 주위가 답답하다.’, ‘설사를 하면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다.’, ‘변비가 있으면 가슴이 뜨겁다.’, ‘음식이 자주 올라오며 가슴이 불편하다.’와 같이 설문을 구성하였다.

10) 특이증세 ‘정충’, ‘목동’, ‘자인’, ‘태식’, ‘문란’, ‘인통’, ‘건망’, ‘해역’

18-9 …太陰人 有胸膈怔忡證也, 少陰人 有手足悞亂證也, 太陰人 有目眚上引證 又有目睛內疼證也, 少陰人 則無此證也, 少陽人 平時呼吸 平均 而間有一太息呼吸也, 太陰人 則無此太息呼吸也…

18-11 太陰人… 若 怯心 至於怕心則 大病作 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18-12 少陽人… 若 懼心 至於恐心則 大病作而 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18-14 少陰人 有咽喉證 其病太重而爲緩病也 不可等閒任置 當用 蔘桂八物湯 或用 獐肝 金蛇酒.

18-15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非殆證也 不必疑惑而亦不可無藥 當用 獼猴藤五加皮湯.

태음인의 정충, 목동, 目眚上引, 소음인의 태식, 手足悞亂, 인후통, 소양인의 건망, 태양인의 해역 등의 체질별 특이증을 기재하여 체질판별에 활용하도록 한다.

5. 切 診

1) 기육 ‘후’, ‘박’, ‘견’, ‘연’, ‘미’, ‘조’, ‘세’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보원	18-9 太陰人 肌肉 堅實	18-9 少陰人 肌肉 浮軟		
의전	대개는 肥胖하나 견실	浮軟	淺薄	瘦瘠
십조	손등피부가 두텁고 땀세다. 혹 부드러운 사람도 있다	손등피부가 뜨고 연하다.	손등피부가 미끄럽고 얇아 보인다. 그러나 혹 두터운 사람도 있다. 모공은 보통이나 큰 사람도 있다.	
요결	거칠다. 모공이 큰 편.	연하고 부드럽다. 모공이 작다.		

고찰 : 피부는 전신피부를 다 만져보기 어려우며, 특히 (십조)에서 손등피부로 판별하는 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주로 손등피부를 만져보고 판별에 필요한 요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즉 두터우면 '후', 얇으면 '박', 견실하면(뻣세고 거칠면) '견', 부드러우면 '연', 감촉이 미끄러우면 '미', 피부가 힘없이 들리면 '부', 조직이 성글고 땀구멍이 크면 '조', 조직이 섬세하고 땀구멍이 작으면 '세'로 기재하여, 후건조는 태음인 피부로, 부연세는 소음인 피부로, 박미는 소양인 피부로 파악하도록 한다.

2) 맥 '부', '침', '지', '삭', '강', '약', '긴', '완', '장', '단', '대', '세'

	태 음 인	소 음 인	소 양 인	태 양 인
보원	18-9 ...太陰人 脈長而緊, 少陰人 脈緩而弱...			
십조	태음인은 길고緊함.	소음인은 느리고 약함.	소양인은 뜨고 자진 편, 혹은 미약.	

고찰 : 浮沈遲數強弱에 大細長短緊緩까지 기재하여 체질판별에 도움이 되게 한다. 즉 長大緊하면 태음인 맥, 遲緩弱하면 소음인 맥, 浮數하면 소양인맥으로 보도록 한다.

3) 복진 '둔각', '직각', '예각', '거상', '거하'

갈비뼈의 벌어진 각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을뿐더러 근거가 충분히 있으므로, 둔각, 직각, 예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장차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음인의 하초혈증과 소양인의 결흉증에 근거하여 소음인은 소복거안, 소양인은 상복거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거상', '거하'로 기재하여 유의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V. 체질판별표의 제안

1. 체질판별표

이름 :		판별일 :		판별체질 :		(점)	의심체질 :		(점)		
1.얼굴종합	기상	얼굴형	얼굴색	머리	이마	눈	코	입	입술	이	턱
	소 나귀 말 용	넓적 타원 길쭉 계란 금형 원형	청백 적록 황백 흑청 적백 적록	납작 침골침 전후장 두피후 박	평평 함몰 돌출	심안 소눈 호안	풍성 매부리	대 함몰 돌출 소	후 하 상 박	웅니 섬근 뼈덩 덧니	풍후 가름 예리
						닳눈 사슴눈	방울 납작				
						매눈 구슬눈	작음 예리 들창				
						눈썹강 약	산근높 낮				

이름 :		판별일 :		판별체질 :		(점)		의심체질 :		(점)	
2. 체형 언행		체구	체형	손가락	걸음	태도	성음	말씀씨			
		비 장 수 단	요위 둔부 흉금 뇌추	장후 단후 곱다 새발	허리 중 숙임 앞전 상체 경	무거움 기댐 부산	웅장 중 온유 탁 맑음 경	느림 소언 빠름 다언			
3. 성질 종합		성향	감정표현	생각표현	아기때	관계장점	관계단점	일처리	성격특징	병적마음	전체특징
		회성 락성 노성 애성	내수 소심 폴속 대노	고집 내성 주장 큰소리	고집 순함 폴속	꾸준 자상 활달 교화	고착 당여 외숭 교우	성취 꼼꼼 빠름 대세	욕정 욕처 욕거 욕진	겁심 불안 구심 급박	중후 단중 강무 과단
4. 증세 종합		한열	음식습관	탈난음식	음식기호	대변	소변	땀	병증특징	특이병증	
		외한 오열 지냉 지온 소음 다음 온식 냉식	다식 소식 지식 속식		육 과 채 어 패	비 설 회/ 일	단 삭 삼 탁 불리	다 소 자 도	이질 설사 변비 열격	정충 목동 자인 태식 문란 인통 건망 해역	
5. 절진 종합		피부	맥	복진							
		후 건 조 부 연 세 박 미	긴강 장대 완약침지 부삭단세	둔각 예각 거하 직각 거상							

체질판별표 이용법

- ① 각 칸에 해당되는 변수값에 0표하되, 변수값이 여러개면 여러개 표시하고 판단이 안 되면 표시하지 않는다.
- ② 그 다음 각 줄의 첫째칸 아래 네칸에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의 순으로 각 줄의 점수 합계를 기록하고 이 점수와 자신이 정한 가중치, 직감 등을 고려하여 윗칸에 '태음', '소음', '소양', '태양'으로 기재한다.
- ③ 전체 점수와 가중치, 직감을 종합하여 체질을 판별하여 맨 윗줄 판별체질란에 기재하고 옆의 점수란에 그 체질의 점수 합계를 기재하며, 체질판별에 의심이 있을 때는 의심체질란에 두번째로 가능성 있는 체질을 기재한다.

2. 변수값 기재법 및 판별법

' ' 안의 문자는 변수값임.

1) 얼굴 (望診)

얼굴 망진을 할 때는 특징적인 세부형태를 먼저 파악하여 기재한 후, 얼굴 형태의 전체적 무게중심이 어느쪽에 있는냐를 살펴서 세부형태와 함께 고려하여 얼굴종합난에 기재한다. 즉 눈, 코, 입 등 전체적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처지는가(下流: 소음인), 윗쪽으로 치솟는가(上向: 소양인),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퍼지는가(태음인)를 끝으로 살피도록 한다.

(1) 기상 '소', '나귀', '말', '웅'

무겁고 점잖은 소의 기상은 태음, 단정하고 교태가 있는 당나귀의 기상은 소음, 날래고 뚝뚝한 말

의 기상은 소양, 진취적이고 위압적인 용의 기상은 태양.

(2) 얼굴형 '넓적', '길쭉', '타원', '계란', '금형', '원형'

'타원'은 윤곽선이 뚜렷하지 않은 (혹은 굵은) 타원형으로 태음인형이고, '계란'은 가름하고 선이 고운 타원형으로 소음인형이며, '금형'은 윤곽이 날카롭게 각이 진 사각형 또는 오각형, '원형'은 둥글둥글하고 선이 또렷한 소양인형이다.

(3) 얼굴색 '청백', '적혹', '황백', '흑청', '적백', '적혹'

체질별로 표리증에 따라 태음인은 청백과 적혹으로, 소음인은 황백과 흑청으로(청백색이 바탕색), 소양인은 적백, 적혹 등으로(적색이 바탕색)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나 통계자료가 좀더 축적된 후에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4) 머리 '납작', '침골침', '전후장', '두피후', '두피박'

머리형태가 납작한 태음인의 머리형을 '납작',枕骨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소음인의 머리형을 '침골침', 전후로 돌출된 소양인의 머리형을 '전후장', 두터운 태음인의 두피를 '두피후', 얇아서 딱딱한 다른 체질의 두피를 '두피박'으로 기재한다.

(5) 이마 '평평', '함몰', '돌출'

태음인은 평평, 소음인은 가운데 또는 이마 아래 주름 부위(下 1/3부위)가 함몰, 소양인은 그 부분이 돌출.

(6) 눈 '소눈', '심안', '호안', '닭눈', '사슴눈', '매눈', '구슬눈', '눈썹강', '눈썹약'

눈은 특히 단순히 모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태음인은 눈동자가 크고 둥글면서 겹이 많아 보이는 '소눈', 가늘고 눈꺼풀이 두툼하며 눈동자가 깊이 들어가 있는 듯한 '심안', 눈이 찢어지고 무섭게 생긴 '호안' 등이 많다. 소음인은 선이 굵고 눈물이 맺힌 듯 탁한 '닭눈'과 눈이 크면서 선이 고운 '사슴눈'이 많고, 소양인은 작고 날카롭고 힘이 있는 '매눈'과 눈동자가 크면서 눈빛이 맑고 푹푹찰찰한 '구슬눈'이 많다. 그 외에 눈썹의 강약을 기재하여 참고한다.

(7) 코 '풍성', '매부리', '방울', '납작', '작음', '예리', '들창', '산근늬', '산근늬'

태음인의 두터운 코를 '풍성', 매부리코를 '매부리', 소음인의 방울코는 '방울', 납작한 코는 '납작', 소양인의 작은 코는 '작음', 코끝이 예리한 것은 '예리', 들창코는 '들창'이라 기재한다. 또 山根(코 뿌리부위)의 높고 낮음도 기재하여 태음인의 미간이 낮은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8) 입 '대', '소', '함몰', '돌출'

염소입이나 개입처럼 소음인의 큰 입을 '대', 소양인의 작은 입을 '소'라 기재한다. 또 입이 앞으로 나오고 들어간 것을 기재하여 소양인의 입이 앞으로 나온 경우가 많은가를 확인해본다.

(9) 입술 '후', '박', '상', '하'

음인들의 아래 위 모두 두터운 입술을 '후', 소양인의 아래 위 모두 얇은 입술을 '박', 소양인의 윗입술이 위로 치켜 올라간 입을 '상', 소음인의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하여 특히 두터운 입을 '하'라 기재한다.

(10) 이 '웅니', '성근니', '빠덩', '덧니'

이빨의 모양을 기재하여 체질별 유의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웅니는 태음인, 빠덩니와 덧니는 소양인, 성근니는 소음인과 소양인에게서 모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11) 턱 '풍후', '가름', '천박'

넓고 풍부한 태음인의 턱을 '풍후', 좁고 얇은 소양인의 턱을 '천박', 가름하게 생긴 소음인의 턱을 '가름'으로 기재한다.

2) 체형과 언행(望診+聞診)

(1) 체구 '비', '수', '장', '단'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보통 이상으로 크고 작고 살찌고 마른 경우에만 기재한다.

(2) 체형 '요위', '둔부', '흉금', '뇌추'

섰을 때 허리의 통거운 정도, 앉았을 때 엉덩이의 펴퍼짐한 정도, 가슴의 품은 크기, 목의 일어서기세 중 상대적으로 큰 것을 기재한다.

(3) 손가락 '장후', '단후', '굵다', '새발'

태음인의 손가락은 굵으면서 길거나 굵으면서 짧고, 소음인의 손가락은 굵으면서 짧거나 길면서 선이 고우며, 소양인의 손가락은 살이 없고 뼈만 있는 듯한 새발모양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길이보다는 손가락에 살이 있는가 없는가와 선이 투박한가 고운가 하는 점이 체질판별에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걸음 '허리', '숙임', '상체', '경', '중', '얇전'

태음인이 허리를 흔드는 것을 '허리', 발이 무겁고 걸음이 느린 것을 '중', 소음인이 앞으로 수그리

고 걷는 것을 '숙임', 조심성있게 걷는 것을 '얇전', 소양인이 상체를 흔드는 것을 '상체', 발이 가볍고 걸음이 빠른 것을 '경'으로 기재한다.

(5) 態度 '무거움', '기댐', '부산'

태음인의 거동이 무거운 것을 '무거움', 소음인이 기대고 앉는 것을 '기댐', 소양인이 부산한 것을 '부산'이라 기재한다.

(6) 성음 '웅장', '온유', '맑음', '탁함', '경', '중'

태음인의 말소리가 웅장한 것을 '웅장', 소음인의 말투가 온유한 것을 '온유', 음인들의 말소리가 탁한 것을 '탁함', 소양인의 말소리가 맑은 것을 '맑음', 말이 가벼워서 의사표현이 빠른 것을 '경', 말이 무거워서 의사표현이 느린 것을 '중'이라 기재한다.

(7) 말솜씨 '다언', '소언', '느림', '빠름'

말수가 많고 적은 것과 말이 빠르고 느린 것을 기재한다. 음인들은 말수가 적고 느리며, 양인들은 말수가 많고 빠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성 질(問診)

Ⅳ-3에서와 같이 동의수세보원 원문에 바탕하여 변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설문문항을 정하는 방법은 설문 문항을 정확히 구성하는 데는 유리하나 실제 문진으로 변수값을 파악하는데는 불리하다. 실제 문진에서는 가급적 같은 종류의 질문이면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Ⅳ-3에서 개발한 설문 문항을 감정과 생각의 표현 양상, 인간관계와 일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10개의 변수에 따라 재분류하여 성정문진표를 만들

었다.

〈성정 문진표〉의 각 항목의 응답을 보고 직접 질문을 통하여 응답이 정확한지를 판단한 후 변수 옆의 ' ' 안에 적힌 변수값을 기재하며, 변수값이 두 개가 나오면 모두 기재하도록 한다.

〈성정 문진표〉

- 1) 성향 ① '회성' ② '락성' ③ '노성' ④ '애성'
남들이 나를 보고
(①보수적이라고 한다. ②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③부당한 일에 의분이 많다고 한다. ④개혁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 2) 감정 표현 ① '내수' ② '소심' ③ '폴속' ④ '대노'
화가 나면
(①잘 표현하지 않는다. ②퐁하고 오래 간다. ③금방 표현하고 금방 풀어진다. ④강하게 표현한다.)
- 3) 생각 표현 ① '고집' ② '내성' ③ '주장' ④ '큰소리'
(①고집을 오래 부린다. ②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③주장이 강하고 직선적이다. ④큰소리를 잘 친다.)
- 4) 아기 때 ①② '고집' ③④ '순함' ⑤⑥⑦ '폴속'
(①오래 울었다. ②때가 심했다. ③순했다. ④낮을 많이 가렸다. ⑤자주 울었다. ⑥낮을 안 가렸다. ⑦부산했다.)
- 5) 인간관계 장점 ① '꾸준' ② '자상' ③ '활달' ④ '교화'
남들이 나를 보고
(①은근하고 꾸준하다 ②섬세하고 자상하다 ③씩씩하고 활달하다 ④처음 보는 사람도 교화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
- 6) 인간관계 단점 ① '고착' ② '당여' ③ '외승' ④ '교우'

- ①틀어지면 오래 간다. ②가까운 사람에게 치우치는 편이다. ③사람들과 잘 부딪친다. ④가까운 사람에게 더 소홀하다는 말을 듣는다.
- 7) 일 처리 ① '성취' ② '꼼꼼' ③ '빠름' ④ '천시'
(①시작이 느리나 끝까지 해낸다. ②꼼꼼하고 섬세하다. ③일처리가 빠르다. ④대세 파악이 빠르다.)
- 8) 성격 특징 ① '욕정' ② '욕처' ③ '욕거' ④ '욕진'
(①움직이기 싫어한다. ②집에 있기를 좋아한다. ③일을 잘 만드나 뒤가 무르다. ④전진만 있고 물러서지 않는다.)
- 9) 병적 마음 ①②③ '겁심' ④ '불안' ⑤⑥ '구심' ④ '급박'
(①낮선 일에 겁이 많다. ②대범하다. ③느긋한 편이다. ④겉으로는 느긋한데 속으로는 불안하다. ⑤두려워하면서도 일을 벌인다. ⑥마음이 급박하다.)
- 10) 전체적 특징 ① '중후' ② '단중' ③ '강무' ④ '과단'
(①무겁고 느리다. ②섬세하고 얌전하다. ③급하고 가볍다. ④과단성이 있다.)

4. 증 세(問診)

다음 각 항목의 응답을 보고 변수값을 기재한다.

〈증세 문진표〉

- 1) ① (더운게, 추운게) 더 싫다
② 이불을 (차내고, 잘 덮고) 잔다
③ 손발이 (따뜻하다, 차다)
④ 물을 (많이, 적게) 마신다
⑤ (찬, 더운) 음식이 좋다
- 2) 식사량이 (많다, 보통, 적다, 식욕없다)
식사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 3) 먹고 탈난 음식이 있으면 표시하시오.
(사과, 조개, 돼지고기, 수박, 딸기, 인삼, 꿀, 닭고기, 감, 참외, 오징어, 뱀장어, 그 외 :)
- 4) (과일, 채소, 고기, 물고기, 조개류)를 특히 좋아한다.
- 5) ① ()일에 ()번 똥을 본다
② (변비, 설사)가 있다
- 6) 소변이 (양이 적다, 자주 본다, 잔뇨감, 탁하다, 잘 안나온다)
- 7) 땀이(많은편, 적은편, 식은땀남, 잘때 땀남)
- 8) 설사를 하면 배꼽 주위가 답답하다. ()
설사를 하면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다. ()
변비가 있으면 가슴이 뜨겁다. ()
음식이 자주 올라오며 가슴이 불편하다. ()
- 9) 평소 (가슴 두근거림, 눈동자가 아픔, 눈썹이 위로 당김, 한숨을 내쉬, 팔다리에 힘 빠지며 손발이 떨림, 목 아픔, 건망증, 아픈데도 없 이 다리에 힘없음)이 있다.

5. 切 診

- 1) 기육 ‘후’, ‘박’, ‘건’, ‘연’, ‘미’, ‘조’, ‘세’

손등피부가 두터우면 ‘후’, 얇으면 ‘박’, 건실하면(뻣세고 거칠면) ‘건’, 부드러우면 ‘연’, 감촉이 미끄러우면 ‘미’, 피부가 힘없이 들리면 ‘부’, 조직이 성글고 땀구멍이 크면 ‘조’, 조직이 섬세하고 땀구멍이 작으면 ‘세’로 기재하여, 후건조는 태음인 피부로, 부연세는 소음인 피부로, 박미는 소양인 피부로 본다.

- 2) 맥 ‘부’, ‘침’, ‘지’, ‘삭’, ‘긴’, ‘완’, ‘강’, ‘약’, ‘장’, ‘단’, ‘대’, ‘세’

長大緊하면 태음인 맥, 遲緩弱하면 소음인 맥, 浮細數하면 소양인맥으로 본다.

- 3) 복진 ‘둔각’, ‘직각’, ‘예각’, ‘거상’, ‘거하’

갈비뼈의 벌어진 각도를 둔각, 직각, 예각으로 기재한다. 小腹拒按이 있으면 ‘거하’, 上腹拒按이 있으면 ‘거상’으로 기재하고, 소음인은 ‘거하’가, 소양인은 ‘거상’이 많은가를 유의해 보도록 한다.

Ⅵ. 활용방안 및 과제

본고에서 제안하는 체질판별표는 이제마의 四診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四象醫들이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한 자신의 체질판별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모든 四象醫들이 임상발표를 할 때 이 체질판별표를 체질판별의 근거로 제시한다면 체질판별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구체적 언어(변수와 변수값)로 학술토론장에 끌어들이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체질판별표의 변수 중 일부만이 체질판별에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부만을 기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는 모든 변수가 의미있다 하더라도 진찰 과정에서 명확히 파악되는 일부 변수만을 기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 여기에 빠진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섯째 줄의 빈칸에 새 변수를 써넣고 기재할 수 있다. 단 그럴 때는 변수와 자신이 변수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상 발표를 할 때 이와 같이 공통된 언

어로 체질판별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임상 발표의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각 변수의 체질판별에의 유의성이 여러 사람에 의해 통계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중시하여 체질판별을 하였고, 어떤 증에 어떤 처방을 써서 몇 퍼센트의 치료율을 보였다.' 라고 말할 때 그 임상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람이 사용한 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과제, 즉 임상발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그것은 '어떤 증이 어떻게 얼마만큼 나왔느냐' 하는 표현의 구체화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초진시와 치료 후의 검사수치나 사진상의 변화를 통해 치료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한의학은 氣를 다스리는 의학이기 때문에 形質의 변화, 검사수치나 사진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의학이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것 대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변화를 통해서이다.

환자의 고통 경감은 의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3자, 즉 客觀으로써는 백퍼센트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것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병증등급법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증등급법이란 진료부에 그냥 '두통이 나왔다' 라고 쓰는 대신에 '두통 5등급이 00탕 몇일분 복용 후에 4등급으로 떨어졌으며, 또 XX탕 몇일분 복용 후에 3등급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두통이 소실되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각 병증의 등급을 발생횟수와 강도와 동반 증상 등을 통하여 미리 정해 놓은 다음 모든 임상 발표 때에 같은 방법으로 기술한다면 한의진단의 객관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체질판별표에 관한 논의가 학계에서 시작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체질판별표가 제시될 것이며, 그 과정은 곧 사상의학의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과 언어의 공유가 시작된다면 사상의학계 전체의 체질판별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이 체질판별표가 사상의학계에서 사용되거나, 최소한 본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四診法에 충실한 체질판별표를 만드는 작업이라도 학계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체형 계측 논문〉

- 1.李文鎬, 洪淳用: 四象體質類型과 體格 및 身體形態指數와의 比較研究, 四象醫學會誌 2:1, 71-86면.
- 2.許萬會, 宋正模, 金達來, 高炳熙: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4:1, 107-148면.

〈두면부 계측 논문〉

- 3.허반옥 김동수: 朝鮮族 成人 300名에 對한 四象醫學的 體質測定, 四象醫學會誌 6:1, 55-66면.
- 4.고병희 외 7인: 四象體質別 頭面部의 형태학적 특징, 四象醫學會誌 8:1, 101-186면.
- 5.김창수: 태음인과 소음인의 두면부의 체질인류학특점, 四象醫學會誌 9:2, 299-302면.
- 6.김수범, 송일병: 腰痛患者의 四象體質醫學的 臨牀分析 報告(四象處方, 赤外線體熱診斷, 藥針療法을 중심으로), 四象醫學會誌 8:1, 377-394면.

〈생화학적 분석 논문〉

7. 金敬堯, 韓宗鉉, 洪淳用: 太陰人 男學生의 血液變化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3:1, 151-172면.
8. 이수경,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身體計測 및 檢査所見을 中心으로 한 四象人의 특징에 대한 分析, 四象醫學會誌 8:1, 349-376면.
9. 조황성, 지상은,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권건혁, 남봉현, 조동욱: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 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 사상의학회지 9:1, 147-162면.

〈설문분석 논문〉

10. 金鐘元, 高炳熙: 入院患者 53例의 體質辨證을 위한 設問 統計分析(少陽人/少陰人), 四象醫學會誌 3:1, 89-104면.
11. 趙鏞台, 宋一炳: 入院患者 53例의 體質辨證을 위한 設問 統計分析(태음인/태양인), 四象醫學會誌 3:1, 105-120면.
12.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 분류검사(QSCC)의 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5:1, 61-80면.
13.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5:1, 81-98면.
14. 趙鏞台,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査의 準據妥當化 研究, 四象醫學會誌 6:1, 21-40면.

15. 金達來: 設問紙를 利用한 體質鑑別方法의 信賴度에 關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6:1, 89-94면.
16. 金善호, 고병희, 송일병: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표준화 연구, 四象醫學會誌 8:1, 187-246면.
17.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Ⅱ)의 타당화 연구, 四象醫學會誌 8:1, 247-294면.
18. 노성호, 이의주, 홍석철,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 분류검사의 타당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四象醫學會誌 8:2, 239-256면.
19. 김종원: 體質診斷分類에 따른 疾病 및 病狀類型에 관한 임상적 연구(문진표를 중심으로), 四象醫學會誌 8:1, 337-348면.

〈서적류〉

20. 洪元植編: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4.
21. 李泰浩: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울, 杏林出版, 1990.
22. 李道耕: 四象要覽, 益山, 圓佛敎出版社, 1995.
23.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 소나무, 1992.
2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25.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제42기 卒業準備委員會編著: 韓國의 體質理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7.
26. 金洲: 性理臨床學, 大星文化社, 서울, 1997.